

2011 코이콤 총회 및 전시회

방송 매체를 통해 전 세계 170여 개국에 성경 복음과 하나님 권능을 전하는 GCN 방송이 스페인어권 기독교방송인협회인 코이콤의 총회 및 전시회에 참가했다.

일곱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통해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는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훈 (2)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혹여 미지근한 신앙에 젖어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 다시금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시공을 초월한 기도로 백혈병이 치료됐어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사진 위에 받고 백혈병을 치료받은 프랑스만민교회 마리 테레사 성도와 곁어진 인대를 이어주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소위민 자매의 간증.

만민뉴스

제505호 2011년 10월 30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파라과이에서 열린 '2011 코이콤 총회 및 전시회' 참가



◀ 코이콤 총회 개막식
(장소 CFA: Cetro Familiar de Adoracion, 파라과이 최대 교회)

성경 복음과 하나님 권능을 전 세계 170여 개국에 방송하는 GCN 방송(www.gcnetv.org)이 남미권의 국제 기독교 미디어 축제인 코이콤(COICOM: 스페인어권 기독교방송인협회) 총회 및 전시회에 참가했다.

올해 코이콤 총회 및 전시회는 남아메리카 중부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지난 10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렸다. GCN 방송은 공중파 TV와 케이블, 라디오 채널 등 방송 관계자들과 교제를 나

누고 방송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GCN 방송 부스에는 많은 교계 지도자와 목회자가 방문해 엔라쎄 방송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시청한 소감을 은혜로운 간증과 함께 전했다.

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사인 엔라쎄 방송은 세계 3천여 개 채널을 통해 수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매일 일 이재록 목사의 설교를 방송하고 있다. 파라과이 목회자협의회 회장 산티아고

말도나도 목사는 “가톨릭 신자가 90% 이상인 파라과이의 부흥을 위해 권능의 사역이 절실하다”라고 하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성회 강사로 공식 초청했다.

한편 GCN 방송 김진홍 국장은 21일 파라과이 공중파 TV 채널2 ‘레드 파라나’(www.redguarani.com.py)의 모닝쇼 ‘엘히간떼’ 생방송에 출연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권능과 만민의 세계 선교 및 GCN 방송 사역을 파라과이 전역에 약 15분간 소개했다.



파라과이 공중파 TV에 출연해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홍보하는 GCN 방송 김진홍 국장(가운데)과 페루 만민교회 알도 기도 장로(왼쪽)

네팔 지교회 연합 수련회

지난 10월 5일에서 7일까지 힌두교 국가 네팔에서 지교회 연합 수련회가 ‘신뢰’라는 주제로 열렸다. 카트만두 인근 ‘커커니 국제 스카우트훈련센터’에서 개최된 이 수련회에는 총 11개의 지교회에서 10명의 목회자와 지도자, 성도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네팔만민선교센터 담임 이해천 목사는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해 버려야 할 9가지’를 주제로 설교했고, 이 밖에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천국과 지옥 비디오 상영’, ‘성령충만 기도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박타 가즈멜 목사(자바 지역)는 “매우 귀한 말씀을 들었고 나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며 그가 만민의 사역으로부터 받은 많은 축복을 간증했다.

이어 라메쉬 수바 목사(일람 지역)는 “프로그램 내용은 간단하지만 영적인 힘이 아니고서는 성취하기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이었다”라고 감탄해 마지않았다. 이 외에도 많은 참석자가 수련회를 통해 용기와 새로운 영적 힘을 받았다고 간증했다.

태국 북부 지교회 목회자 훈련

지난 10월 19일에서 20일까지 1박 2일간 태국 북부지역 지교회 목회자 훈련이 차이쁘라칸 만민 지교회에서 있었다.

강사 이재원 선교사(치앙라이 만민교회 담임)와 까생 목사(이재록 목사 저서 라후어 번역자)는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성령’, ‘기도’, ‘참된 주의 종의 자세’ 등 5개 과목으로 강의했으며, ‘기도’ 강의 끝에는 이재원 선교사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가 있었다.

이에 참석한 현지 지교회 목회자들은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라고 감탄하며 참된 주의 종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태국은 국민의 94% 이상이 불교신자이다.

필리핀 만달루용 목회자 세미나

지난 10월 17일,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의 마닐라 만달루용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그렉 두란떼 목사(을 크리에이션 회장)와 조찬형 목사(까비떼 만민교회 담임)를 강사로 열렸다.

50여 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가운데 그렉 두란떼 목사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저서 『권능』의 내용을 토대로 강의했다. 이후 조찬형 목사는 ‘믿음의 분량’을 주제로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믿음, 믿음의 단계와 그에 따른 상급에 대해 전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시종 진지한 표정으로 메시지를 경청하며 만민의 사역에 큰 관심을 보였고, 약 20개 교회가 우리 교회 협력교회로 가입했다.